

한국의 무슬림 정체성¹

조희선 *

I. 서론

II. 한국의 무슬림 현황과 유입 형태

II-1. 한국의 무슬림 현황

II-2. 한국의 무슬림 유입 형태

III. 한국의 무슬림 정체성

III-1. 종교생활

III-2. 이슬람식 생활방식

III-2-1. 의생활

III-2-2. 식생활

IV. 나가는 말

1. 본 논문은 2007-2009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A00062).

*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 현재, 한국아랍 어아람문화회 회장, 한국이슬람학회 부회장

한국의 무슬림 정체성

I. 서론

사회학 전반에 사용되는 정체성이란 개인의 신념, 개인의 특성이나 집단적 소속감의 표현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무슬림의 정체성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슬람 각국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개인적 신념, 혹은 무슬림으로서의 집단적 소속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이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무슬림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다. 이슬람은 종파에 따라 혹은 전통적으로 각 지역에 적용되는 법학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슬람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개방화 정도, 토착 관습 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혹은 무슬림은 다른 종교 집단과는 구별되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슬람이 ‘함께’이면서도 ‘따로’인 특징을 가지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독특한 속성과 무슬림들이 간주하는 종교적 원천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우선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태생부터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와는 달리 췌과 俗을 아우르는 정교일치의 색체를 띠고 있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교도들과의 전쟁을 통해 이슬람 공동체를 건설한 정치, 군사 지도자였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 역시 신과 인간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 즉 혼인, 이혼, 상속, 양육 등의 세상적인 문제에 관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무슬림들이 신앙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것은 꾸란 외에도 예언자의 언행록 하디스(*Hadith*)가 있다. 예언자 사망 후 이슬람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이슬람 공동체는 꾸란에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예언자의 언행록을 수집하여 이를 이슬람 공동체 운용의 근거로 삼았다. 예언자 사후 100년이 지나서야 집대성된 예언자의 하디스 모음집에는 하디스를 전하거나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 혹은 당대의 사상이나 관습 등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언자 사후 200여 년이 지나서

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건설된 이슬람제국을 위한 이슬람법, 즉 샤리아(Shari'ah)가 여러 이슬람 법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슬람법 샤리아는 꾸란과 하디스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토속관행 및 관습을 토대로 제정되었다. 무슬림들의 신념 혹은 신앙의 표현이나 집단적 소속감의 표현은 바로 이러한 꾸란과 하디스, 그리고 이슬람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하디스 가운데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존재하는가 하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법학과 역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가나 지역에 따라 무슬림의 정체성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이슬람 국가는 57개국에 달하며 무슬림들은 서쪽의 아프리카부터 동쪽의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으로 다른 다양한 지역에 걸쳐 살고 있다. 따라서 생활종교를 따르는 무슬림들의 정체성은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세계 도처의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이슬람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적 관행 혹은 이슬람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매우 불분명한 개념으로 무슬림조차 자신들이 행하는 관행이 꾸란에 언급되어 있는지 혹은 하디스에 나와 있는 것인지, 혹은 그것이 이슬람법 샤리아에만 존재하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슬람의 이러한 다중적 특성 때문에 학자들은 무슬림을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동질적인 정체성을 연구하려는 시도를 하는가 하면, 무슬림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며 출신 국가나 지역에 따른 다양한 무슬림 집단을 연구하기도 한다.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나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와 같은 학자들은 이슬람 문화의 동질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른 많은 학자들은 이슬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이슬람의 변종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무슬림을 각 집단별로 연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² 그러나 9.11 사태 이후 유럽에서는 무슬림의 에스니시티(ethnicity) 연구보다는 무슬림을 동질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Chouki El Hamel, 2002), "Muslim Diaspora in Western Europe: The Islamic Headscarf (Hijab), the Media and Muslims' Integration in France," *Citizenship Studies*, Vol. 6 No. 3(2002), p.294.

우리 학계에서도 무슬림을 동질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해 이주하여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무슬림들을 개별집단으로 인식하여 연구하는 시도도 있어 왔다. 한국의 무슬림 정체성이라는 본 연구 역시 제목에서 나타나듯 무슬림을 동질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출발은 우리사회에서 이주민의 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이주민 가운데 가장 큰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아시아계의 상당수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이슬람 국가 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이주민의 자녀들은 코시안(Kosian)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같은 아시아계이면서도 필리핀이나 태국 출신의 이주민은 분명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출신의 이주민과 사뭇 다른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이주민의 수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이슬람 각국 출신의 무슬림 이주민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나 지역이 아닌 종교를 변수로 이주민 집단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유럽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주변화 될 경우 에스니시티가 아닌 종교를 중심점으로 한 거대 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이슬람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별 무슬림의 현황을 점검해 보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유입된 경로나 동기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무슬림 정체성의 기본이 되는 신앙생활, 의생활 및 식생활을 권역별로 나누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에 유입된 무슬림들의 현황 및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향후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9.11 사태 이후 서구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무슬림 이주민들의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서도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구사회의 담론에 전도된 혹은 일부 기독교인들에 의한 이슬람포비아(Islamo Phobia)의 조장을 경계하고 아울러 향후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그려낼 무슬림 이주민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한국의 무슬림 현황과 유입 형태

II-1. 한국의 무슬림 현황

그 동안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는 국내 무슬림 3만 여명을 포함하여 한국 내 무슬림 숫자가 10만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혀왔다. 반면, 일부 기독교계에서는 국내에서 15만 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이 ‘활동’ 중에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렇듯 국내에 체류하는 무슬림 이주민의 숫자는 그 동안 정확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 인구에 대해서는 종교를 변수로 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종교를 변수로 한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외국인 체류관리 현황은 국적별 현황만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 체류 무슬림 이주민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이슬람 회의기구(OIC국가)³ 57개국 및 동남·남아시아⁴의 일부 국가를 포함한 총 65개국 출신의 합법 및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해당 국가의 무슬림 비율을 적용해서 국내 총 무슬림 숫자를 추정할 따름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무슬림일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출신 국가 및 그 국가의 무슬림 인구 비율은 표1)⁵과 같다.

권역별	국가별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86.1%), 말레이시아(60.4%), 필리핀(비OIC, 5%), 타이(OIC옵서버, 4.6%), 싱가포르(비OIC, 14.9%), 캄보디아(비OIC, 2.1%), 미얀마(비OIC, 4%)
중앙아시아계	우즈베키스탄(88%), 키르기스탄(75%), 카자흐스탄(47%), 아프가니스탄(99%), 타지크스탄(90%) 등
남아시아	파키스탄(95%), 방글라데시(83%), 스리랑카(7.6%) 인도(13.4%), 네팔(4.2%)
비아랍중동	이란(98%), 터키(99.8%)
아랍	이집트(90%), 사우디아라비아(100%), 요르단(94%), 이라크(97%), 리비아(97%), 모로코(98.7%), 시리아(90%), 수단(70%), 알제리(99%)
기타 OIC국가	나이지리아(50%)

표1) 이슬람 권역별 국가 및 무슬림 비율

3.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4. 동남아 국가 가운데서도 베트남이나 라오스는 무슬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5. 국가별 무슬림 비율은 CIA The World Factbook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임.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index.html>.

표1)에 나타난 국가 출신의 국내 체류자의 수에 해당 국가의 무슬림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면 국내 체류 무슬림 숫자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09년 10월 통계월보에 나타난 국적별 한국 체류 외국인 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별 무슬림 비율을 적용한 국내 무슬림의 추정 수치는 표2)와 같다.

권역별	남성		여성		소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동남아시아계	24,836	83.7	4,841	16.3	29,677	37.4
중앙아시아계	16,639	76.2	5,191	23.8	21,831	27.5
남아시아계	20,065	94.1	1,260	5.9	21,325	26.9
비아랍중동계	1,865	83.4	373	16.6	2,238	2.8
아랍계	2,555	81.9	565	18.1	3,119	3.9
기타 OIC 출신	953	79.5	245	20.5	1,198	1.5
총계	66,913	83.13	12,475	16.87	79,388	100
국내총외국인체류자	65,7015	56.4	507,151	43.6	1,164,166	

표) 2009년 10월 국내 체류 무슬림 현황(귀화 및 국적취득자 제외)-통계청리안정국

표2)에서 보듯 동남아시아계가 국내 체류 전체 무슬림 인구의 37.4%, 중앙아시아계가 27.5%, 남아시아계가 26.9%로 국내체류 무슬림 인구의 91.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기타지역에서 온 무슬림들은 8.2%에 불과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출신의 무슬림들이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이란이나 터키, 아랍국가 출신의 무슬림보다 국내에 더 많이 이주한 것은 이주의 일반적인 패턴을 생각해 볼 때 자연스런 결과이다. 게다가 외국인 유입 초기 한국정부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국가와 산업연수생제도를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로부터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한 것이 한국 내 무슬림 유입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2)에 나타나듯 권역별 무슬림 총수는 79,388명에 이른다. 여기에 2008년도까지의 누적 무슬림 귀화자 수 1,288명을 더할 경우 국내 체류 무슬림 총수는 80,676명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2009년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총 1,164,166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무슬림 인구는 총 외국인의 6.82%에 달한다.⁶

6.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국제지역연구』, 제 31권 1호(2010), p.119.

국내 체류 무슬림 이주민의 총수가 8만 명 정도라는 추정치는 한국이슬람중앙회에서 발표한 추정치와 근사하다. 그러나 무슬림 이주민의 숫자는 국내의 경제상황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따라 증감을 지속하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위기 이후 무슬림의 인구 유입도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 무슬림의 유입은 가족이나 친지의 초청을 중심으로 하는 연쇄이주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내의 무슬림의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II-2. 한국의 무슬림 유입 형태

한국의 무슬림 유입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중소기업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이주는 시작되었다. 산업연수생으로 유입된 많은 무슬림들은 계약 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수도권이나 경남권의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아 불법 체류하였다. 그 결과 이슬람 국가에서 온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우리나라의 국가별 평균 불법 체류율은 20.9%인데 비해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이란의 불법체류율은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⁷ 그리고 표3)에서와 같이 불법체류비율 상위 11개 국가 가운데 7개 국가가 이슬람 국가라는 사실은 국내의 무슬림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 노동자로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위		총 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대한민국 총계	1,094,712	866,208	228,504	20.9%
1	방글라데시	13,016	2,671	10,345	79.5%
2	키르기스스탄	2,537	680	1,857	73.2%
3	이란	1,556	445	1,111	71.4%
6	이집트	807	325	482	59.7%
9	우즈베키스탄	19,095	10,363	8,732	45.7%
10	카자흐스탄	2,224	1,222	1,002	45.1%
11	파키스탄	10,408	5,909	4,499	43.2%

표3) 2008년 2월 현재 불법체류비율 상위 11개국-통계정리 오종진

7. 조희선, 김대성, 안정국, 오종진, 김효정,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제 27권 2호(2008), p.90.

국내에 체류하는 무슬림 이주노동자와 더불어 2000년대 이후에는 결혼이주 무슬림 여성의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결혼이주 증가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노동자 신분으로 유입된 상당수의 무슬림 역시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 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제혼에서 무슬림과 한국인과의 혼인은 아직 낮은 비율로 나타나지만 권역별로 많게는 전체 체류자의 9~10%, 적게는 2~3% 정도의 무슬림 이주자들이 한국 남성, 혹은 한국 여성과 혼인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 노동자 계층이 주류를 이루는 남아시아계의 경우에는 주로 이주민 남성과 한국 여성과의 결혼이 대부분이고, 동남아시아계나 중앙아시아계의 경우 한국 남성과 무슬림 이주 여성과의 혼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슬림과 한국인과의 혼인은 무슬림 2세, 즉 코스림(Koslim)⁸을 생산함으로써 한국 무슬림 공동체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이주자들이 혼인 이외의 방법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열리긴 하였다. 그러나 단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국내 체류 무슬림들은 한국 정착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혼인을 통한 거주비자 획득 및 귀화에 의존하고 있다.

결혼이주자들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권역별 무슬림의 귀화 및 국적 취득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표4)와 같이 총 1,067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귀화 및 국적 취득자 47,914명 가운데 2.2% 정도에 해당된다. 무슬림 집단 가운데 한국국적을 가장 많이 취득한 사람들은 남아시아계와 중앙아시아계이다. 동남아시아계, 아랍계, 비아랍중동계 출신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동남아시아계는 우리나라 체류 무슬림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나 귀화 및 국적 취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순으로 한국 국적을 가장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8.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들과 한국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 즉 이주 무슬림 2세와 이주 무슬림 1.5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필자를 비롯한 본 연구팀에서 만든 용어이다.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코시안'이라는 용어가 지역적 개념에 근거한 반면, '코스림'이라는 용어는 이주자의 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문화적 개념의 용어이다.

권역별	국가별		소계
중앙아시아계	우즈베키스탄	234	363
	카지흐스탄	49	
	키르기스탄	83	
	기타	7	
남아시아계	파키스탄	376	512
	방글라데시	136	
동남아시아계	인도네시아	86	98
	말레이시아	12	
아랍계	모로코	24	54
	기타	30	
비아랍중동계	터키	12	40
	이란	28	
총계			1,067
			(총귀화자 수 47,914명의 2.2%)

표4) 무슬림 집단별 귀화 및 국적취득현황(2007)

다음 표5)는 배우자 사증(F-2)의 소지여부를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무슬림 결혼이주자 집단을 파악한 통계분석 자료이다. 무슬림 결혼이주자 집단은 3,594명으로 한국의 전체 결혼이주자 집단 중 약 2.92%에 해당된다. 이들 결혼이주자 가운데 88%가 여성으로 대부분의 무슬림 결혼이주자들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슬람법 샤리아는 원칙적으로 여성들이 이교도와 결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무슬림 여성보다는 무슬림 남성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도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계 무슬림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슬림 결혼이주자들이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아랍계, 비아랍중동계, 남아시아계 모두 약 80-90%가 남성 결혼이주자들이다. 중앙아시아계와 동남아시아계 무슬림 집단에서만 여성 결혼이주자들이 각각 97%와 88%를 차지하고 있어 통상적인 무슬림 집단의 혼인양상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⁹

9. 조희선, 김대성, 안정국, 오종진, 김효정, "한국이주 무슬림의 혼인현황과 정착과정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11-3호(2009), pp.89-91.

권역별	국가별	남성	여성	소계
중앙아시아계	우즈베키스탄	45	1339	1384
	카지흐스탄	8	162	170
	키르기스탄	2	271	273
	기타	1	12	13
남아시아계	파키스탄	605	22	627
	방글라데시	417	39	456
동남아시아계	인도네시아	51	362	413
	말레이시아	7	47	54
아랍계	모로코	22	13	35
	이집트	21	1	22
	기타	18	4	22
비아랍중동계	터키	28	5	33
	이란	78	4	82
무슬림 총계		1,303	2,281	3,584
전체 외국인 총계		14,753	107,799	122,552

표5) 이슬람국가 출신 결혼이주자 국적별·성별 현황(2007)

중앙아시아는 소비에트 통치기간 동안 이슬람적 가치가 퇴색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었다. 현대적 교육을 받고 대도시 생활에 익숙한 대부분의 중앙아시아계 여성들의 경우 현지에서도 이민족과의 결혼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한국인과의 혼인에도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⁰ 동남아시아계 여성의 경우는 문화적,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외모 면에서도 다른 지역 출신의 여성에 비해 거부감이 적어 한국인 남성들 사이에서 선호되고 있다. 안정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이주남성의 경우 한국인 여성에게 인기가 별로 없지만 여성의 경우 많은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구애를 받는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계를 연구한 오종진과 인도네시아계 연구자 안정국의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여성의 경우 결혼중매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반면, 동남아시아 여성의 경우에는 국내 이주노동자

10. 오종진, "한국사회에서의 중앙아시아 이주 무슬림들의 혼인과 정착",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0권 1호(2009), pp.267-268.

11. 안정국, "한국 이주 인도네시아 여성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0권 1호(2009), p.232.

로 들어와 한국 남성과 연애를 통해 혼인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아시아계나 동남아시아계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아시아계, 아랍계, 비아랍중동계의 경우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슬람법에는 무슬림 여성이 이교도 남성과 혼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오늘날 이슬람 각국의 세속화나 개방화 정도에 따라 이슬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현실 속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III. 한국의 무슬림 정체성

서론에서 밝혔듯이 무슬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슬람은 성과 속을 아우르는 종교라는 점에서 종교생활과 이슬람식 생활방식의 실천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통해 정체성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종교생활로는 개인 일일예배의 준수와 금요 집단예배의 참석을, 그리고 이슬람식 생활방식으로는 의생활과 식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III-1. 종교생활

무슬림들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¹² 가운데서도 예배라 할 수 있다. 무슬림들이 하루에 수행해야 하는 다섯 차례의 예배 가운데 정오예배와 오후예배는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무시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문화적 충돌이 발생한다. 정오예배와 오후예배를 밤예배 시 한꺼번에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무슬림들은 제 시간에 각각의 예배를 수행하길 선호한다. 또한 대부분의 이슬람 세계에서 공휴일이자 집단예배가 이루어지는 금요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적 정체성 유지에 어려움을 느낀다.

오늘날 전 세계의 무슬림들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계층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

12. 무슬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종교적 실천으로 증언, 예배, 단식, 희사, 순례가 있다.

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일일예배를 준수하거나 금요일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다르다. 우선 이슬람에서 금요 집단예배는 남성들에게는 의무이지만, 여성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서도 일일예배 준수 정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난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로 근무 중이라도 예배 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 있는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린다. 심지어 상점이나 슈퍼마켓, 커피숍 등은 예배시간이 되면 가게 문을 아예 닫아버리거나 매장 안의 손님을 밖으로 쫓아내기도 한다. 반면, 튀니지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의 확산을 우려한 정부가 금요일을 근무일로 지정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금요 집단예배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

국내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개인 일일예배 가운데 근무시간에 걸쳐 있는 정오 예배와 오후예배를 드릴 경우 사업주가 이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무슬림들이 근무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근무태만으로 비춰져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무슬림 노동자들의 불만이다. 금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금요 집단예배를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일하는 지역을 벗어나 모스크를 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많은 경우 이들은 한국정부의 단속이 두려워 거처나 일터, 혹은 일터에 마련된 숙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약 5개월 간 서울, 안산, 용인, 동두천, 의정부, 수원 등의 수도권지역과 부산, 김해 등 경남지역의 무슬림들¹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¹⁴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가운데 개인예배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72.1%의 응답자들이 개인예배를 실천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한국 거주 무슬림들이 개인예배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아랍계, 동남아시아계, 남아시아계의 80% 이상이 개인예배를 실천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이들이 다른 권역

13. 설문대상 가운데는 아랍계가 179명, 터키와 이란과 같은 비아랍종통계 114명, 중앙아시아계 112명,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출신의 남아시아계가 89명,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출신의 동남아시아계가 220명이 포함되어 있다.

14. 2007년-2010년 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을 받아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의 문화변이에 관한 연구: 다문화 속 코슬림(Koslim)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3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의 무슬림들에 비해 종교적 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앙아시아와 비아랍중동계는 개인예배를 실천하는 비율이 다른 권역의 무슬림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개인예배 수행 여부

		아랍	비아랍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체
	예	156	37	44	74	186	497
		90.7%	33.6%	41.5%	86.0%	86.5%	72.1%
	아니오	16	73	62	12	29	192
		9.3%	66.4%	58.5%	14.0%	13.5%	27.9%
전체		172	110	106	86	215	68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요 집단예배의 참석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40%의 사람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반응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개인예배보다 공휴일이 아닌 금요일에 모스크에 참석하여 집단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국 거주 이주 무슬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개인예배와 마찬가지로 비아랍중동계와 중앙아시아계의 무슬림들이 다른 권역 출신의 무슬림들에 비해 모스크 집단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금요일예배 월별 참석 횟수

		아랍	비아랍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체
	1회	13	14	7	11	20	65
		7.6%	12.7%	6.6%	12.8%	9.8%	9.6%
	2회	25	19	13	6	17	80
		14.7%	17.3%	12.3%	7.0%	8.3%	11.8%
	3회	9	11	14	2	8	44
		5.3%	10.0%	13.2%	2.3%	3.9%	6.5%
	매주	78	7	26	36	70	217
		45.9%	6.4%	24.5%	41.9%	34.1%	32.1%
	참석안함	45	59	46	31	90	271
		26.5%	53.6%	43.4%	36.0%	43.9%	40.0%
전체		170	110	106	86	205	67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러한 유형의 설문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이 얼마만큼 보장되는가에 따라 그 신뢰도

가 달라질 수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랍계, 남아시아계, 동남아시아계 무슬림들이 중앙아시아계나 비아랍중동계 무슬림들에 비해 종교생활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외에 각 권역별 표본과 개인적인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남아시아계 무슬림 노동자의 경우 개인예배는 작업 중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유학생의 경우 수업을 마친 후 밤예배 시에 한꺼번에 하거나 점심시간에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¹⁵ 모스크 집단예배 참석이 저조한 것은 과도한 업무 혹은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불시에 잡힐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 이외에 외출을 삼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¹⁶

금요일예배와 관련하여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아랍계 한 피면접자는 “부평에 큰 모스크가 있으나 나는 그곳에 가질 않는다. 금요일예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그러나 일요일이면 이태원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놀기도 한다. 바쁘기 때문에 매주 갈 수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우리사회에서 금요일예배를 지키기가 어렵고, 대신에 휴일인 일요일에 모스크를 찾아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¹⁷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무슬림들은 인천, 안산 등의 수도권과 부산 등지의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망은 소규모 무살라(*musalla*)¹⁸에서 시작하여 좀 더 큰 인도네시아 커뮤니티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⁹

15. 김효정, “한국이주 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집단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3호(2008), p.127.

16. “한국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은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다. 그러나 그들이 외부에 드러나서 활동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따라서 사원에도 자주 나오지 않는다. 김해의 경우 1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25명 정도만이 무살라에 나와 예배에 참석한다.”(부산성원 이맘 인터뷰 중), 위의 글, p.127.

17.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중동학회논총』, 29-1호(2008), pp.57-58.

18. 모스크보다 규모가 작은 예배소

19. ICC (Indonesian Community in Corea 혹은 Islamic Community in Corea)는 인천, 안산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이주민 그룹의 연합단체이다. 부산에서도 자생적인 인도네시아 무슬림 단체 'PUMITA(Persaudaraan Umat Muslim Indonesia Al-Fatah 알 파타 인도네시아 무슬림 우정 공동체)가 만들어져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의 인도네시아 무슬림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정국, “한국 이주 동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사회적 연결망”, 『한국중동학회논총』, 29-1호(2008), pp.82-83.

중앙아시아계 무슬림들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도시출신으로 소비에트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들의 경우 개인예배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슬람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기 동안의 탈 종교정책의 영향으로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모스크 집단예배에 참석한다든지, 혹은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드는데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²⁰

이렇듯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종교적 실천에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슬림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체성은 모두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예배의 비율이 높으면서 모스크 집단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유럽의 초기 이주 무슬림들과 매우 유사하다. 유럽 이주 무슬림들은 이주 초기 단신으로 정착하면서 집이나 가게 뒷방 등에서 개인예배를 드렸다. 후에 가족들이 합류하면서 이들은 이슬람적 정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무슬림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종교 서클과 마찬가지로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무살라를 학교당국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주의 역사가 깊어지고 노동자들의 단신이주가 가족의 연쇄이주로 이어질 경우 모스크나 무살라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이를 통한 무슬림들의 종교적 정체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II-2. 이슬람식 생활방식

III-2-1. 의생활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는 여성의 복장을 규제하는 여러 개의 구절이 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믿는 여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 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리수건을 써서....”(꾸란 24:31)이다. 후대 법학자들은 이 구절

20. 오종진, “한국 이주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3집, (2008), p.84.

가운데 ‘밖으로 나타나는 것’을 얼굴과 손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 온 몸을 가리는 것, 특히 가슴을 가리는 것이 이슬람식 복장의 기본 코드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히잡(hijab, 가리개) 역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국가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그 착용의 방법이나 범위가 천차만별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외국인 여성들도 온 몸을 가리는 아바야(‘abayah)나 차도르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엄격한 규제가 가해지는 반면, 모로코나 튀니지 등의 국가에서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현대식 복장을 착용한다.

유럽, 특히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공화주의 이념의 성소로 간주되는 학교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은 마치 이슬람의 상징, 혹은 이슬람적 정체성의 표현과 같은 함의를 지니게 되어 유럽에서는 이슬람식 히잡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²¹에서 무슬림 여성의 히잡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5.1%,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5.8%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타인의 의상 선택과 같은 개인적인 생활에 개입과 판단을 선호하지 않는 젊은 대학생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할 수 있다.²² 그러나 이주 무슬림 여성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장에서 히잡을 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혹은 시택에서 시택 식구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직장이나 시택에 갈 때는 히잡 대신에 모자로 대체하고 모스크나 이태원을 나올 때는 히잡을 쓴다고 응답한 것을 보면 우리사회에서도 히잡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슬림 여성의 의상과는 달리 무슬림 남성의 경우 특정한 종교적 의상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독특한 전통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이슬람 국가에서 남성들이 전통의상을

21. 2009년 전국에 있는 9개 대학캠퍼스에서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코슬림(Koslim: 한국 이주 무슬림 2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학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22. 조희선, 김대성, 안정국, 오종진, 김효정, 유왕중, . “코슬림(Koslim: 한국 이주 무슬림 2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학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호(2010), p.299.

착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현대식 복장을 착용한다. 그러나 걸프지역의 아랍인들이나 남아시아계 무슬림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통의상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미 세속화가 많이 진행되어 본국에서도 남성들이 현대식 복장을 착용하는 비아랍중동계와 중앙아시아계의 경우 히잡이나 전통의상을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히잡이나 남성의 전통복장 착용여부는 남녀 간의 통계를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 이집트인들이 다수를 차

■ 히잡이나 전통복장 착용 횟수

성별		지역별분류					전체
		아랍	비아랍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성	항상	17	4	7	10	11	49
		11.2%	4.1%	9.3%	14.1%	6.0%	8.5%
	자주	4	9	0	9	22	44
		2.6%	9.2%	.0%	12.7%	12.0%	7.6%
	보통	6	5	4	8	32	55
		3.9%	5.1%	5.3%	11.3%	17.5%	9.5%
	가끔	43	20	20	39	75	197
28.3%		20.4%	26.7%	54.9%	41.0%	34.0%	
입지않음	82	60	44	5	43	234	
	53.9%	61.2%	58.7%	7.0%	23.5%	40.4%	
전체	152	98	75	71	183	57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	항상	5	1	3	4	14	27
		45.5%	6.7%	8.8%	40.0%	42.4%	26.2%
	자주	0	0	1	0	1	2
		.0%	.0%	2.9%	.0%	3.0%	1.9%
	보통	1	2	9	4	8	24
		9.1%	13.3%	26.5%	40.0%	24.2%	23.3%
	가끔	1	1	2	2	10	16
		9.1%	6.7%	5.9%	20.0%	30.3%	15.5%
	입지않음	4	11	19	0	0	34
		36.4%	73.3%	55.9%	.0%	.0%	33.0%
	전체	11	15	34	10	33	10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하고 있는 아랍계, 터키와 이란 출신의 비아랍중동계 및 중앙아시아계의 50% 이상이 전통복장을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권역의 경우 본국에서조차 신앙심의 정도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남성들은 현대식 복장을 주로 착용하기 때문이다. 본국에서도 전통복장의 착용비율이 높은 남아시아계와 동남아시아계 무슬림들의 경우 이주지인 한국에 와서도 전통복장을 즐겨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샘플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역시 개방화된 사회 출신의 비아랍중동계와 중앙아시아계 여성들은 한국에서도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이주자 비율이 높은 동남아시아계 여성의 경우는 히잡 착용하는 비율이 다른 권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많은 응답자들은 일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혹은 한국인 고용주가 전통복장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통복장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사회에서 히잡을 착용하는데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할지 모른다. 한국사회에 아직은 무슬림 여성이주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히잡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코슬림 세대가 성장하게 되면 코슬림의 정체성 문제와 더불어 한국사회에도 유럽의 사례에서처럼 히잡의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있다.

III-2-2. 식생활

꾸란에는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먹지 말라”²³(꾸란 2장 173절)고 금기음식이 규정되어 있다. 또 다른 장에는 “술과 도박과 우상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사탄은 너희 가운데 적의와 증오를 유발시키려 하니 술과 도박으로써 하나님을 염원하고 예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도다...”(꾸란 5장 90-91절)라며 술을 금기시 하고 있다. 이렇듯 무슬림들에게 식생활은 단지 먹는 행위가 아닌 종교적 실천이자 더 나아가 자신들의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의 금기음식 가운데 특히 돼지고기와 술은 한국사회의 사회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돼지

23. 최영길 역,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메디나, 1417년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골라먹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인터뷰에서 만난 무슬림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달리 단체 회식에서 주로 나오는 돼지고기나 술을 거부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 하였다. 즉 무슬림들의 식생활은 한국의 정서 및 문화와 충돌하는 또 다른 무슬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주로 먹는 음식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약 50% 정도가 모국 음식을 먹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슬림들에게 모국 음식이란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리고 이슬람식 도살법으로 잡은 고기로 요리한 할랄(halal)²⁴ 음식을 의미한다. 한국이주 무슬림들은 음식이 입맛에 맞고 맞지 않고를 떠나 우선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할랄 음식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모국 음식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남아시아계, 아랍계, 동남아시아계 무슬림들이 모국 음식에 더욱 집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 가정에서 주로 먹는 음식

	아랍	비아랍중동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체
한식	15	51	43	7	75	191
	8.5%	45.5%	38.7%	8.0%	34.9%	27.2%
모국음식	109	31	38	73	94	345
	61.6%	27.7%	34.2%	83.0%	43.7%	49.1%
패스트푸드	25	10	11	0	25	71
	14.1%	8.9%	9.9%	.0%	11.6%	10.1%
기타	13	3	0	5	10	31
	7.3%	2.7%	.0%	5.7%	4.7%	4.4%
한식+모국음식	11	17	14	2	7	51
	6.2%	15.2%	12.6%	2.3%	3.3%	7.3%
한식+패스트푸드	0	0	3	0	0	3
	.0%	.0%	2.7%	.0%	.0%	.4%
모국음식+패스트푸드	3	0	1	1	4	9
	1.7%	.0%	.9%	1.1%	1.9%	1.3%
전체	177	112	111	88	215	703
		100.0%	100.0%	100.0%	100.0%	

24.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음식을 의미

세속적인 성향의 비아랍중동계와 중앙아시아계 무슬림들의 경우 모국음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식자재 구입처를 묻는 또 다른 문항에서도 남아시아계의 49.4%, 그리고 동남아시아계의 32.4%가 외국인 식자재 전문상점, 즉 무슬림들을 상대하는 전문 상점에서 식자재를 구입한다고 응답하여 이들의 이슬람적 정체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돼지고기는 종교적인 금기에서 출발해서 문화적인 금기가 되어 버린 듯하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한 아랍계 피면접자는 개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는 여전히 먹을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돼지고기 문제가 정말 피곤해요. 종교적인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술은 마시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경우는 많은 무슬림들이 그래요. 선생님은 원숭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돼지고기는 병을 가져오는 더러운 것이라고 배웠어요.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문화적인 거예요.”²⁵ 인터뷰에 응한 많은 무슬림 남성이주자들이 돼지고기는 먹지 않지만 술은 가끔 친구들과 즐긴다고 응답하였다. 무슬림들에게 돼지고기는 ‘못 먹는 것’, 그리고 술은 ‘안 먹는 것’²⁶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중앙아시아계 무슬림들은 예배의 실천이나 의생활과 마찬가지로 음식문화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많은 중앙아시아계 무슬림들은 어느 정도 술을 즐기며, 음식 또한 이슬람의 금기 음식을 민감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다른 권역의 무슬림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IV. 나가는 말

국내의 이주 무슬림은 다양한 권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유입 경로 역시 노동이주자를 비롯하여 결혼이주자, 유학생, 투자이민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가고 있는 한국 이주 무슬림의 정체성은

25.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0-1호(2009), p.204.

26. 안정국, “한국 이주 인도네시아 여성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한국중동학회논총』, 30-1호(2009), p.247.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개인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개인예배와 집단예배를 통해 종교생활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종교가 금기하는 음식은 가능한 먹지 않고, 여성들의 경우 정숙한 옷차림의 상징인 히잡을 착용하려는 공통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듯 ‘따로’이면서 ‘함께’인 무슬림들은 우리사회에서 각기 다른 무살라나 모스크에서 예배를 보며 직장이나 학교 등의 생활 터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다. 한국 이주 무슬림들은 서구 무슬림 공동체가 거친 네 가지 발전단계²⁷ 가운데 1단계인 초기 개척자단계와 2단계인 연쇄이주 단계의 전환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쇄이주가 본격화되고 이주민이 가정을 이루어 코슬림들이 양산될 경우 유럽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적 정체성이 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래 이슬람 공동체의 실질적인 근간이 될 무슬림 결혼이주자는 현재 귀화자를 합칠 경우 약 5천 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코슬림의 수는 정확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나 약 3천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슬림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경우가 성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대부분이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대를 이루고 있다.²⁸ 코슬림들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이 성장하여 청년기에 이르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둘러싼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장차 사회에서 주변화될 경우 우리사회에도 무슬림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무슬림일 경우 그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이슬람적 정체성을 주입받으며 코슬림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그리게 될 무슬림들의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다문화 사회를 표방하는 한국사회에서 필수한 사안이 되었다. 아시아계 비무슬림 집단과 섞여 이들의 문화적인 특수성이 간과될 경우 주변화와 소외, 그에 따른 집단화로

27. 1단계가 초기 개척자(pioneer)단계, 2단계가 연쇄이주(chain migration)단계, 3단계가 가족이주 단계, 마지막이 서구에서 자란 무슬림 신세대의 출현단계이다. Lewis, Philip. "Christians and Muslims in the West: From isolation to shared citizenship?".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Christian Church*. Vol.3 No.2(2003), pp. 82-83.

28. 안정국, "이주 무슬림 2세-코슬림의 생활세계와 실천원리-인도네시아 이주 무슬림 2세를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10)』, pp.182.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도 무슬림들의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공립학교에서 철저한 세속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프랑스에서조차 특정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에게 해당 종교의 금기음식을 뺀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아직 코슬림 학생의 수가 적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의 수가 증가할 경우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할랄 급식의 제공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인 배려 없이는 우리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CITED

- 김대성, “한국 사회내 터키인 무슬림 이주자의 현황 및 사회적 조직”,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3호, 2008, pp.27-64.
- 김대성, “한국 이주 터키인과 이란인의 국제혼과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2009.
- 김효정, “한국이주 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집단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3호, 2008, pp.105-146.
- 김효정, “한국이주 남아시아 남성 무슬림 근로자의 문화적응모델 연구: 혼인을 통한 문화정체성 형성의 패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9-2호, 2009, pp.113-137.
- 안정국, “한국 이주 동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사회적 연결망”, 『한국중동학회논총』, 29-1호, 2008, pp.67-91.
- 안정국, “한국 이주 인도네시아 여성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한국중동학회논총』, 30-1호, 2009, pp.217-256.
- 안정국, “이주 무슬림 2세-코슬림의 생활세계와 실천원리-인도네시아 이주 무슬림 2세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0』, pp.175-188.
- 오종진, “한국 이주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3집, 2008, pp.65-103.
- 오종진, “한국사회에서의 중앙아시아 이주 무슬림들의 혼인과 정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출신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30-1호, 2009, pp.257-293.
- 오종진, “중앙아시아 코슬림(한국 이주 무슬림 2세)들의 정체성과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 『중동연구』, 29-1호, 2010, pp. 91-120.
- 유왕종, 김효정, 안정국, “남아시아 출신 코슬림(Koslim)의 한국사회 정착 및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29-1호, 2010, pp.151-186.
- 정진경, 양계민,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호, 2001, pp.101-136.
-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중동학회논총』, 29-1호, 2008, pp.31-66.
-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0-1호, 2009, pp.169-215.
-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한국중동학회논총』, 31-1호, 2010, pp.105-149.
- 조희선, 김대성, 안정국, 오종진, 김효정,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수행을 위한 모델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1호, 2008, pp.169-198.
- 조희선, 김대성, 안정국, 오종진, 김효정,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27-2호, 2008, pp.81-124.
- 조희선, 김대성, 안정국, 오종진, 김효정, “한국이주 무슬림의 혼인현황과 정착과정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11-3호, 2009, pp.79-115.

조희선, 김대성, 안정국, 오종진, 김효정, 유왕중, , “코슬림(Koslim: 한국 이주 무슬림 2세)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과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학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호, 2010, pp.277-308.

Lewis, Philip. “Christians and Muslims in the West: From isolation to shared citizenship?”.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Christian Church. Vol.3 No.2, 2003. pp.77-
100.

El Hamel, Chouki. “Muslim Diaspora in Western Europe: The Islamic Headscarf (Hijab), the
Media and Muslims’ Integration in France”, *Citizenship Studies*, Vol. 6 No. 3, 2002,
pp. 293-308.

• 인터넷 자료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index.html>.

(2010년 5월 1일 접속)

ABSTRACT

Muslims' Identity in Korea

Hee Sun Cho

Generally speaking, it is not easy to define Muslim's identity in a word. Muslims who live in different Islamic countries have various features in their personal beliefs and the way of expressing their sense of belongings. Islam has also differ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eligious sects and regional jurisprudence as well as the politics, economy, degree of social openness, and indigenous customs of each Islamic country. Nevertheless, it is also true that Islam or Muslim has common identities distinguished from other religious groups.

Due to this contradictory features of Islam, some scholars focused their studies on the homogeneity of Islamic culture, while others concentrated on Muslims' heterogeneity based on their ethnicity, admitting that the Islam could be changed by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But there is a big trend to study Muslims as a homogeneous group rather than various ethnic groups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2001.

This study, as suggested in the title "Muslims' Identity in Korea", also starts from the point that Muslims are homogeneous group. Nowadays, immigration problem became a hot issue in Korean society. Asians that compose the majority of immigrants to Korea are Muslims from Bangladesh, Pakistan, Indonesia and other Islamic Asian countries. Meanwhile, the descendants of Asian immigrants married to Koreans are called "Kosian". But it is a kind of nonsense that Muslim immigrants from Bangladesh, Pakistan, and Indonesia are intermingled with non-Muslim immigrants from Philippines and Thailand in the same category. Though they are all Asians, they have strikingly

different cultural and religious backgrounds. It is expected that more Muslim immigrants would come to Korea as the total number of immigrants increase. At the moment, it is important to study immigrant groups according to their religious backgrounds. Because the Muslim immigrants, if they were marginalized in our society, might gather around the religious background instead of ethnicity to form a big group as we've seen in European countries.

In the second chapter, therefore, we will examine the present condition of Muslim immigrants and their routes and motives of immigration to Korea. We will classify them into five groups to find out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among them. In the third chapter, we will make research on their religious life, clothes, and dietary taboo which are considered as an expression of their identity. And we will find out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among Muslims from the five regions. The study on Muslim immigrants to Korea would be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we could see one section of the future Korean society which is rapidly changing into multi-cultural one.

• Key words:

Muslim immigrants to Korea, Koslim, Muslim's Identity,
Arab Muslims, Non-Arab Middle Eastern Muslims,
Central Asian Muslims, South Asian Muslims,
South East Asian Muslims